

열여덟 어른 캠페인

<그룹 프로젝트> 스터디 결과

박강빈 캠페이너_자립준비

**“자립 교육은 받아봤지만
진짜 자립은 처음입니다”**



목차

CHAPTER 1. 배우는 자립

- 자립을 언제부터 배울까요
- 자립을 어떻게 배울까요
- 자립교육에선 무엇을 배울까요

CHAPTER 2. 진짜 자립

- 자립에 직면하다
- 자립의 진짜 문제
- 자립 교육의 한계

CHAPTER.3 제안합니다

- 당사자 관점의 자립준비 정의
- 당사자 관점의 접근법
- 박강빈 프로젝트 <자립 100days>
-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CHAPTER 1.

배우는 자립

자립을 언제부터 배울까요

시설 입소 후 보호조치가 시작되면서 미취학 아동부터 퇴소 전까지 단계, 학년, 수준별로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에 맞춰 적절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안정적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 목적

아동복지시설·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게 미취학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연령·수준별로 표준화된 자립교육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에 필요한 기술 습득, 자립 능력 향상 및 안정적인 자립생활 지원

- 소개

자립에 필수적인 8개 프로그램 영역별로 아동의 연령·수준에 적합한 자립 교육을 제공하여 보호종료 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 프로그램 (2010년 프로그램 개발, 2018년 개정)

자립교육에선 무엇을 배울까요_8대 영역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은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자기관리기술, 사회적기술, 자산관리기술, 진로탐색기술, 직업생활기술, 사회진출기술 총 8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8개의 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단계가 나뉩니다.

일상생활기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리, 집 관리, 의복 관리 등 기술 습득
지역사회자원활용기술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서비스, 공공기관, 여가생활, 문화시설 활용 기술 습득
자기관리기술	개인위생관리, 건강관리, 응급처치 방법, 성교육, 사기 예방 교육을 통한 자기관리 기술 습득
사회적기술	감정 다루기, 의사소통 기술, 대인관계 기술 습득,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 습득
자산관리기술	교육을 통한 올바른 경제 관념 형성, 효율적인 용돈 관리, 자립 후 살림살이 등 기술 습득
진로탐색기술	직업에 대한 이해, 진로 적성검사, 진학 및 직업탐색, 취창업 계획 세우기, 이력서 작성 등 기술 습득
직업생활기술	직장인이 되는 법, 즐겁게 일하기 등 직장생활기술 습득
사회진출기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출발, 집 구하기, 계약, 이사 등 거주지 마련 방법 습득

자립교육에선 무엇을 배울까요_강연

양육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는 외부 인력의 강연 등 자립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최근에는 시설을 퇴소한 선배들이 자신의 자립 경험담을 나누는 형태의 강연 프로그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육원에 있을 때는 무슨 교육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나요. 강사들이 와서 무슨
교육한다고 했고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어요.”

- 자립준비청년 인터뷰 중

“(선배들이) 직접 경험해 본 미래의 일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자립 불편 해결방법을 알게 되어서 좋았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 허진이 프로젝트 보육원 강연 참여 후기 중

자립교육에선 무엇을 배울까요_자립체험

17세 이상의 아동은 자립체험관, 자립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생활 속에서 자립을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자립체험관에서는 단기간(3~6일)동안 일상생활을 체험합니다. 자립체험프로그램은 장기간(1~6개월)으로 진행, 1인실에서 생활하며 병원 방문, 아르바이트, 대학탐방 등 프로그램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생활에 적용해볼 수 있게 됩니다.

❖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 자립체험관, 자립체험프로그램 비교

구분	Ready? Action!	자립체험관	자립체험프로그램
대상	미취학~보호종료 후 (전 연령)	고등학생, 연장보호아동	고등학생, 연장보호아동
기간	상시 운영 (연간 사업계획, 월별 진행일정 계획)	2박3일~5박6일	1개월~6개월
담당인력	생활지도원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생활지도원	Personal Advisor(PA)
진행방식	집단/개별 프로그램	체험중심	체험 중심
주요내용	8개 영역		6개 영역 (자립기술평가 연계)



자립체험관 사진

❖ 출처: 부산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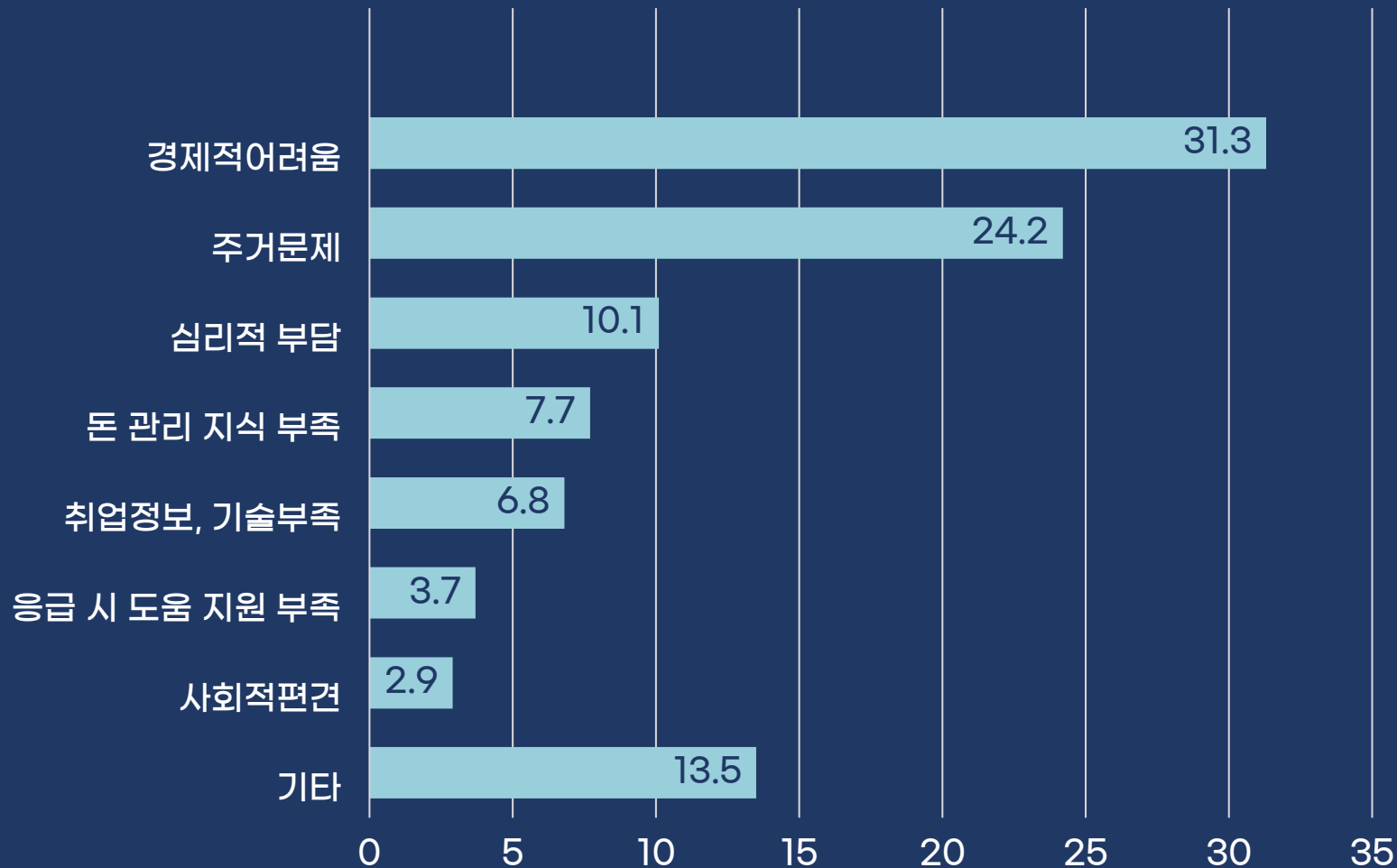
❖ 출처: 2023 자립지원 표준화프로그램 자료집

CHAPTER. 2

진짜 자립

자립에 직면하다

보호종료 후 어려운 점



31.3%

경제적 어려움

24.2%

주거

10.1%

심리적 부담

자립의 진짜 문제



낯선 고지서 앞에서

고지서가 무엇인지, 보일러가 터졌을 때,
처음 경험하는 낯선 일들 앞에서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고아’ 캐릭터 앞에서

스쳐가는 드라마 속 대사는 상처가 됩니다.
혹시 사회에서 누군가가 이런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건 아닌지 움츠러들게 됩니다.



자유와 외로움 앞에서

복적복적하던 공용 공간을 벗어나
처음으로 갖게 된 ‘나만의 공간’에서
설렘과 동시에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매일 매일 벽에 부딪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어쩌면 자립이란 것은 사소한 문제의 연속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 경험하는 감정들은 낯설기만 합니다.

자립교육의 한계

자립교육에 대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들의 공통된 반응은
“기억나지 않는다” “관심이 없었다” 입니다.

“

고등학교 때까지도 월 3만원 용돈을 받으면서 사는데 그때 자립교육에서 적금, 예금, 주택청약에 대해 설명해도 들리지가 않죠.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 때 그런 교육이 와 닿을 것 같아요. _정○지

“

퇴소하기 전에는 아무리 좋은 교육, 정보를 알려줘도 관심이 없어요. 게임하고 싶은데 부르니 짜증난 상태에서 참여하니 들리는 것도 없었어요. 퇴소 2~3개월 전쯤 되면 정신을 차리죠. _하○수

“

원에 있을 때에는 무슨 교육한다고 해도 관심이 없었고, 그래서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나요. 강사님들 와서 무슨 교육한다고 했고, 자리에 앉아만 있었어요. 딴 생각해서 귀에 안 들어와요. 백화점에서 일하면서 후회했죠. 그런 교육 잘 들어 놓을 걸 하고요. _이○려

CHAPTER. 3

제안합니다

당사자 관점의 자립준비 정의

자립교육

일상생활교육, 민간지원제도, 국가지원정책 등
외내부 강사와 함께 진행되는 집체교육
단기적인 자립체험프로그램



자립준비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감정이 들 수도 있구나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잘' 살고 싶어

자립은 교육만으로 준비할 수 없습니다.
자립은 당사자의 전 생애적으로 접근하여
스스로 삶에 대해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홀로서기를 대비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고 지지해 주는 과정입니다.

당사자 관점의 접근법

“

아직 자립을 시작하지 않은 후배들에게는
자립에 대한 막연함을 덜어주고,
자립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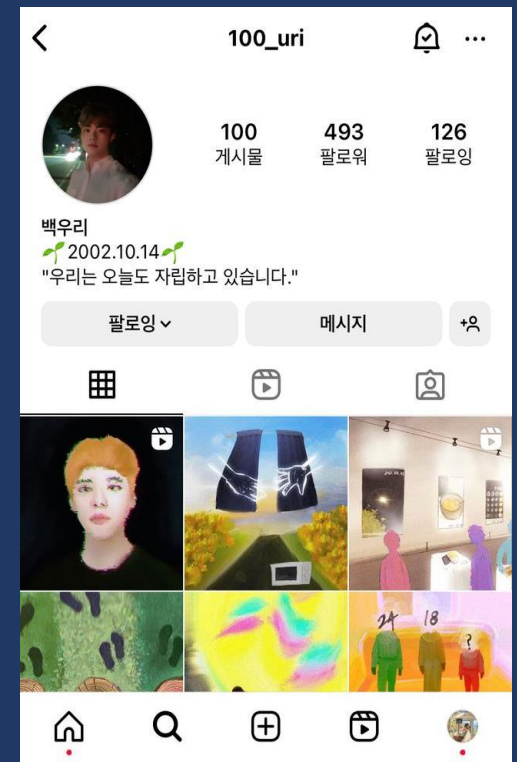
더불어 자립을 지원하는 기관과 사회에는
우리의 자립은 당사자의 삶, 일상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 열여덟 어른 박강빈 캠페이너



박강빈 프로젝트 <자립 100days>

- 자립준비청년들은 퇴소 후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고지서 납부, 세탁기 고장, 응급실 문제 등 실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일을 마주합니다. 박강빈 캠페이너는 이런 자립의 진짜 모습을 전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 ‘백우리’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여 실제 자립준비청년의 100개 자립 이야기를 100일간 전했습니다.
- 기간: 2021년 8월 ~ 2022년 3월
- 진행 내용 및 링크
 - 자립사례 인터뷰
: 당사자의 자립 사례를 수집하여 프로젝트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자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대면, 전화, 서면 인터뷰 30명 진행
 - ‘백우리’ 인스타그램 운영 [\(클릭\)](#)
: 가상의 자립준비청년 ‘백우리’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00일간의 자립 모습을 일상에서 보여줌(‘백’가지 ‘우리’의 이야기)
 - 박강빈의 리그램 [\(클릭\)](#)
: 박강빈 캠페이너의 시선을 담아 백우리의 자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전함



백우리 인스타그램에 담긴 자립준비청년 이야기



실제 인터뷰 : 자립 4년차 / 23세 / 남 / 주O민

"시설에서 생활할 때는 라면 끓여먹을 때마다 최소 열 봉은 같이 끓여서 통통 불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들면으로 야무지게 먹곤 해요 ㅋㅋㅋ.."



실제 인터뷰 : 자립 7년차 / 26세 / 여 / 손O영

매일 출근할 때나 샤워를 할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강해져야 한다"고 외쳤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힘들어지니까 스스로에게 그런 말을 해주며 버텼어요.



실제 인터뷰 : 자립 4년차 / 23세 / 여 / 이O지

친구랑 떡볶이를 먹거나 생일선물을 살 때 원장님의 검토와 서명을 거치고 지급받는게 많이 번거로웠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오늘도 자립하고 있습니다”

자립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삶 그 자체입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나요?

1. 도움을 요청해도 된다는 안정감

“나만 겪는 일이 아니구나” “그럴 수 있구나”,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일에 해결이 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있다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합니다.

2. ‘잘’ 살 수 있다는 희망

“나는 잘 살 수 있어” “잘 살아보고 싶어” “이렇게 사는 모습이 잘 사는 모습이구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누구나 다양합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합니다.

3. 사회적 도움 연결

“일어설 곳이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정부지원, 민간지원 등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스스로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합니다.